

살인까지 부른 농한기 ‘농촌 불법 도박’

‘웃놀이’ 도박판서 돈 잃은 60대 다투던 지인 몸 불 붙여 숨지게 전남 도박 한해 평균 200건 적발

고흥의 한 마을에서 도박 중 살인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농한기를 맞아 농촌에서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며 강력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23일 고흥경찰은 웃놀이를 하다 다투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지인인

B(7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6명과 함께 수십여만원의 돈을 걸고 웃놀이를 하던 중 B씨가 100여만원의 돈을 따고 자리를 뜨려 하자 크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와 일행들은 경찰·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화상을 입은 B씨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사건 발생 3달 뒤인 이달 20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강력사건이라는 첩보를 입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그동안 일행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A씨가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모든 척 해달라’는 취지로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날 보완 수사가 필요하며 기각하자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농한기에 농촌 도박이 성행하면

서 관련 폭력, 절도 등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전남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박 건수는 △2018년 249건 △2019년 260건 △2020년 193건 △2021년 243건 △2022년 124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1분기 43건 △2분기 22건 △3분기 33건 △4분기 26건으로 추수가 끝난 후부터 모내기 전 기간인 1분기에 도박이 집중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수사도 쉽지 않다. 전남과 같은 농촌 밀집 지역은 주민들끼리의 웃놀이, 화투 등의 모습으로 도박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고흥의 사례처럼 도박 중 강력 범죄가 벌어지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서로 합의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농촌 도박은 수십여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작지 않고, 인적이 드물거나 동네 주민만 아는 사랑방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개인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농한기 성행하는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도 단속 등 노력을 기울이고, 농촌 주민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불법 촬영은 중범죄입니다”

광주 남부경찰-남구 합동점검

봉선동 일대 공중 화장실서 불법 카메라 설치 집중 점검

“휴지통부터 환풍기, 문고리, 구멍, 나사까지 구석구석 훑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여러 가지 장비로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광주 남부경찰과 남구가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지난 22일 봉선동 일대의 공중 화장실 곳곳을 누볐다.

총 5명이 한 조를 이뤄 각기 다른 장비를 들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종합적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봉선1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제석산 등 산로까지 공중화장실 일곱 곳에서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렌즈 탐지형, 전파 탐지형, 적외선 탐지형 등 장비로 화장실 내외부를 살피고 있었다. 휴지걸이, 가방걸이 등을 설치했던 흔적은 실리콘 등으로 메웠고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심 스티커도 붙였다.

이날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에서는 매년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 115건 △2019년 120건 △2020년 116건으로 비슷한 추세였으나 △2021년 157건 △2022년 160건으로 30% 이상 늘었다. 검거 건수 역시 △2018년 114건 △2019년 124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155건 △2022년 146건으로 올랐다.

정현욱 남부경찰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화장실 몰카는 주로 변기 밑이나 천장, 벽의 구멍 등에 설치된다”며 “불법 촬영 각도가 확보되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요즘은 초소형 카메라도 개발되기 때문에 렌즈 탐지도 하고 전파 탐지도 하고 육안으로도 보고 이중 삼중으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검반은 불법 촬영 뿐만 아니라 비상벨과 조명, 창문, CCTV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공중 화장실 비상벨은 긴급 상황시 누르면 경찰과 통화가 연결되는 동시에 주변에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한다.

이경민 남부경찰 범죄예방진단팀장은 “비상벨은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 쉽게 손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투명한 창문



광주 남부경찰-남구 합동점검반이 지난 22일 오전 봉선동 일대의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탐지하고 있다.

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불투명하게 변경해야하고 CCTV 역시 화장실 출입구를 비춰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남구는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19개소 전체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선후 남구 공원녹지과 주무관은 “현재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빈틈이 있는데 안심 가림막을 설치해 핸드폰, 초소

형 카메라 등을 집어넣을 공간을 없앨 계획이다”며 “현재 남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26개소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19개소에 칸막이 총 49개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